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21일 수요일 (음 8월 21일) 제164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새만금 카지노 허용 약인가? 독인가?

시민단체-도의회 환복위, 토론회 개최... 다양한 주장은 겹쳐
김관영 의원 상대로 한 '추진 저의론' 제기
"새만금보다 부산에 유치될 가능성 더 커"
무조건적 반대론에 비쳐져 위험한 주장 목소리도

새만금 카지노 허용 논란과 관련해 국회 김관영 의원(군산)을 상대로 한 '카지노 추진 저의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물론 이번 주장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혹제기에 불과하지만 자칫 무조건적인 반대론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만큼 위험한 주장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도내 시민단체들이 이번 새만금 카지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번 주장을 통해 엿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약인가 독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윤영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 식으로 진행됐다.

관심을 끈 부분은 토론회에 앞서 제기된 김관영 의원에 대한 특별

법 개정 시도 공개 답변 요구 의견.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발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는 김관영 의원 주장 배경이 의심스럽다"면서 "새만금보다는 부산에 유치될 가능성이 크고 몇몇 정황상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공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 의원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있고 김 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샌즈그룹 회장을 3번 만났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미국 라스베가스 샌즈그룹이 김&장 로펌을 통해 부산시에 투자 의향을 제안한 가운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특별법을 개정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카지노 허용 개정안의 목적은 새만금이 아닌 부산에 있고 김 의원은 오히려 김&장 법률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참석한 몇몇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에 동조한 듯한 분위기였고 새만금 카지노 개정이 통과되면 오픈 카지노 확대 허용에 따라 새만금 보다는 부산의 카지노 유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새만금 내국 카지노 허용'에 따라 득실을 따지는 자리였지만 다양한 의견 주장이 결여된 토론회였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이날 참석자 대부분이 카지노 허용에 대한 부작용만이 주장했다는 점에 서다.

실제로 김진용(고한, 사북, 남면, 신흥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사무처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반대 목소리를 내는 토론회자들이 주를 이뤘다. /신영명 기자



전북 전북도연맹 익산시농민회가 20일 오산면의 한 농지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으로 쌀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논을 갈아엎고 있다.

“자식같은 벼 ‘쌀값 폭락’에 갈아엎어”

전북 전북도연맹, 익산 등 3곳서 논 갈아엎기 투쟁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20일 오전 익산, 순창, 장수 3개 시·군에서 '동시다발 논 갈아엎기 투쟁'에 나섰다.

연맹은 이날 트랙터를 동원해 익산 4,000여㎡, 순창 2,600여㎡, 장수 1,900여㎡ 면적의 논을 갈아엎었다.

이들은 정부의 밥쌀 수입 정책으로 인한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투쟁을 이어갔다.

단체는 "정부의 무분별한 밥쌀 수입 정책으로 농민들은 쌀값이 2만 원대까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쌀값도 떨어지고 수매마저 되지 않

아 농민들은 시름에 젖어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는 "밥쌀 정책만 잘 세워도 정부 재고미가 175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산, 순창, 장수에 이어 연맹은 오는 21일 오후 김제에서 한 차례 더 논 갈아엎기 투쟁을 할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

신개념 지식콘서트 ‘테크플러스’ 전주서 개최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 하자’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신개념 지식 콘서트인 ‘테크플러스(tech+)' 전북 2016 이 이날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렸다. <관련사진 5면>

테크플러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기술·인문과의 융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시작한 사업이다.

지자체에서는 부산과 제주에서 열린 바 있고, 전북에서 진행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날 콘서트는 전통과 문화 등 고유 의 것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과 융합,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는 '법고창신'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의 융합으로 파생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문화산업 공존, 인간중심 사고 등 사회·문화적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했다.

또 송하진 전북지사와 송경영 다음소프트 부사장·박보미 가구 디자이너·김태은 미디어 아티스트 등이 기술과 인문 융합형 관련, 강연을 벌였

▶ 매일 INDEX

2면 "누리과정 체불임금 해소해야"

다.

송하진 지사는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를 보유하고 계승하고 있는 전북에서 법고창신을 주제로 테크플러스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기술과 인문과의 융합 문화 확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창조적 산업 기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테크플러스는 기술과 경제·문화·인간 등 4가지의 결합을 뜻하는 용어로,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생각과 가치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뉴시스

4면 경찰 4589명 늘었는데 전북에선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20일 진행된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주로 복핵과 개헌 등을, 야당은 지진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與 '개헌 필요성'·'복핵 강력대처' 강조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에 대해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김성태 의원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9차례나 개정됐던 헌법은 1987년 이후 30년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한없이 미루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 개헌'으로 흘러간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의원도 "국회 내에 여야 185

여 '개헌·복핵'·야 '지진·우병우'

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개헌모임이 결성됐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복핵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를 주문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한마디로 우리가 말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을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북제재는 한 마디로 효과가 없었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인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냐"고 말했다.

▲野 '지진 대처'·'우병우 논란' 질타

야당은 경주 지진 관련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석 연휴를

맞고도 원전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사상 유례없는 강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들은 그나마 원전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정부의 형편없는 지진 대비 태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 논란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수처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부겸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법조인 출신들이 있다.

홍만표, 최유정, 진경준, 우병우"라며 "이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권력기관인 검찰, 법원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검사를 제외한 누구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국민의 요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1회 전북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풍경

9월 23일 ~ 24일 양일 저녁 7시 30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특설무대

출연진

23일



메인: 자전거 타는 풍경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24일



메인: 고재근(Y2K)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주최: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주관: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 문의: 063-288-9700(전주매일 문화사업국)